

결합범주문법을 이용한 한국어 경어 체계의 이해와 처리

권오식⁰ 박종철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전공 및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oskwon, park}@nlp.kaist.ac.kr

Computational Processing of Honorifics in Korean with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Oshik Kwon⁰ Jong C. Park
Computer Science Division and AITrc¹, KAIST

요 약

한국어나 일본어는 영어 등 서구의 언어와 비교하여 매우 발달된 경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어 체계는 이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국어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정확하게 구사하기는 어려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어 체계의 정확한 구사 능력은 적절한 어휘 선택 능력과 함께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을 위한 중요한 언어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기계번역이나 문법검사기를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경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스템의 구현은 한 차원 높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경어 체계를 조사하고 결합범주문법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소개한 뒤 사극 대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한다.

1. 서론 및 연구동기

경어현상은 발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존대하는 규칙으로 영미권의 언어보다는 한국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경어현상에 관한 연구는 그것의 실현 조건에 관한 것과 실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예를 들어 압존법은 경어법의 실현 조건과 관련이 있다. 반면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동사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거나 주격조사 ‘-께서’ 등을 사용하는 규칙은 실현 방법과 관련이 있다.

- (1)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 (2) 철수가 아버지께 사과를 드렸다.

(1)의 예문에서 화자가 청자인 할아버지를 대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은 경어법의 실현 조건의 문제이다. 그러나 청자인 할아버지를 대우하여 ‘-습니다’와 같은 어미의 사용은 경어법의 실현 방법의 하나이다. (2)에서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대우하는 것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어법의 실현조건의 문제이지만, 화자가 아버지를 대우하는

상황에서 여격조사 ‘-께’의 사용과 동사 ‘드린다’의 사용은 경어법의 실현 방법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어법의 처리는 실현조건과 실현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전자의 처리를 위해서는 화자, 청자, 주체, 객체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용론의 문제가 되지만 후자의 처리는 통사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경어법의 실현조건보다 경어법의 실현방법에 치중하여 경어법을 통사적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실제 자연언어처리에서 화용론 및 담화상의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자동적인 정보획득도 쉽지 않으므로 경어 현상의 통사적 처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어법은 화자, 청자,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 중에 누구를 존대하는가에 따라 주체경어법(존대법), 객체경어법(겸양법), 상대경어법(존대법)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실현된다 [2]. 이 세 가지 차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3) 할아버지께서 오시었다.
- (4) 철수가 선생님께 안부를 여쭙었다.
- (5) 김 선생님, 어디에 가십니까?

¹ 본 연구는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를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주체경어법은 (3)과 같이 주어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이기 위하여 ‘-께서’와 같은 주격조사와 서술어 여간에 선어말어미 ‘-시-’를 덧붙이는 식으로 발현되는 경어법이다. 객체경어법은 (4)와 같이 주체에 대하여 객체를 존대하는 경어법은 여격으로 나타나는 객체에게 ‘-께’의 여격조사를 사용하고 ‘여쭙다’와 같은 특수한 동사를 사용하여 발현되는 경어법이다. 상대경어법은 (5)와 같이 화자가 청자를 대우하여 ‘-님니까’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여 발현되는 경어법이다.

2절에서는 한국어 경어체계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3절에서 앞서 설명한 세 차원의 경어법과 관계된 경어현상을 문형별로 경어체계에 관한 현상을 살펴 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합범주문법으로 경어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살펴보고 5절에서는 사극 대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알아본다. 6절에서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경어체계에 관한 언어학적인 연구로 개괄적인 성격의 것은 [1], [2], [3] 등이 있다. 그밖에 구체적인 현상에 관한 관련 연구는 3절에서 서술한다. 계산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8], [9], [10], [11] 등이 있다. [8]과 [10]은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체계 내에서 각각 한국어의 경어체계를 설명하였으며, [9]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HPSG 체계 내에서 설명하였다. [11]은 GPSG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 일본어의 경어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HPSG 체계 내에서 연구한 [8], [10]은 경어법을 통사적인 일치나 단순한 화용론상의 일치로 보지 않고, 화자와 청자 및 기타의 담화 정보를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6) 박 선생-님-이 김 부장-님-을 최 사장-님-께 소개하-시-었-어요

(7) 선생님-이 손이 따뜻하-시-다.

[8]은 각각의 문장성분이 의미하는 사회적 신분에 관한 화용 정보(pragmatic information)가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경어법에 맞는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6)과 같은 경우에 ‘박선생님이’, ‘김부장님을’, ‘최사장님께’, ‘소개하시었어요’ 등이 나타내는 화용 정보들간의 모순이 없는가를 보는 것이다. 또 이 연구에서는 경어법의 간접높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7)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간접높임의 문제를 HPSG에 Honor Copying Principle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9]는 [8]을 확장하여 일본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문형에 대한 고려가 없다. 반면 [11]은 [9]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경어법을 GPSG체계 내에서 다루고 있으나 경어법을 주어나 목적어에 의하여 동사 변화가 일어나는 순수한 문법 현상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어법 현상에서 통사적 문제를 위주로 다루고 있으나 [11]과 같이 경어법 현상을 순수한 문법 현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8]과 [9]가 복잡한 문형에 관한 기술이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형 위주로 서술한다.

3. 경어현상 분류

본 절에서는 경어현상을 문형별로 분류하고 처리 가능성을 논의한다.

3.1. 접속문(등위접속문, 종속접속문)

접속문과 같이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의 쓰임이 적절한가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서술어들이 하나 공통된 주어를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등위접속문과 종속접속문 모두에서 유사하게 발생한다.

- (8) a. 선생님께서는 상냥하시고 인자하시다.
- b. ?선생님께서는 상냥하고 인자하시다.
- c. *1??선생님께서는 상냥하시고 인자하다.
- d. *선생님께서는 상냥하고 인자하다.
- (9) a.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면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것이다.
- b.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면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것이다.
- c. *1??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면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할 것이다.
- d.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면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할 것이다.

(8)은 등위접속문, (9)는 종속접속문이다. 각각의 a의 문장에는 모든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시-’가 쓰였으나 b, c 문장에는 두 서술어 중 하나에만 쓰였고 d 문장에는 모두 쓰이지 않았다. 각각의 d의 문장들이 비문인 것은 확실하나 b와 c는 정문인지 비문인지 확실하지 않다.² 그러나 그 쓰임을 보면 c에 비하여 b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는 문장 b의 두 서술어 중에 ‘-시-’가 뒤의 서술어에만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3.2. 보조용언구문

- (10) 이 옷을 한번 입어 보세요.
- (11)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 (12) 김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게 되었다.

² 참고문헌 [4]에서는 c의 문장과 같은 쓰임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 (13)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신다.
- (14) 숙모님은 집에 가야 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주는 보조적연결어미로는 '-어', '-고', '-게', '-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되는 경우 '-시-'가 보조용언에만 결합을 한다. 그러나 '-고', '-게', '-지'는 본용언 보조용언 모두에 '-시-'가 나타날 수 있다. [3,5] 사극 자료에서도 '-어'의 경우에는 보조용언에만 '-시-'가 나타난다. 하지만 '-지'와 같은 경우는 주로 보조용언 '않다'와 쓰이는데, 보조용언보다 본용언에 '-시-'가 결합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어야 하다'라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에서 본용언에 '-시-'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3.3 관형절(보문, 관계절)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와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내포문 안에 있는 경우는 관계절, 없는 경우는 보문이라 한다 [6].

- (15)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15)에서 '사실'을 수식하는 "할아버지께서 오시는"과 같은 절이 보문이다. 보문은 그 스스로 필수성분이 모두 갖추어진 절이므로 모문과 상관없이 경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관계절에서는 피수식어가 내포문의 필수문장성분에 해당하므로 내포문과 모문간에 경어 현상이 상호관련되어 있다.

- (16) 장차 대통을 이으실 원자아기씨의 모후신대 제 아우님인들 중 전마마를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 (17) 나는 그 어른께서 내리시는 사약을 기꺼이 마시고 죽을 것이야.

(16)에서처럼 피수식어가 내포문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수식어에 의하여 관계절의 서술어에 '-시-'가 쓰일 수 있다. 하지만 피수식어가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17)과 같이 관계절의 주어에 의해서만 서술어에 '-시-'가 쓰이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3.4 이중주어문

- (18) 할아버지께서는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다.
- (19) 아이가 어머니님이 편찮으시다.

이중주어문은 그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경어 현상을 보인다 [14]. (18)은 서술어의 '-시-'결합이 간접주어인 '할아버지께서'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는 간접주어가 아닌 직접주어에 의하여 서술어에 '-시-'가 쓰인 경우이다 [15]. 그러나 (19)와 같은 이중주어 용법은 정문 여부에 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

지 않았다.

3.5 상대경어법과 호격어

상대경어법은 청자의 존대 정도에 따라 서술어의 어말 어미 표현을 달리 하는데 그 등급은 '해라체', '해체', '하게체', '해요체', '하오체', '합쇼체'로 분류된다 [2]. '해라체', '해체', '하게체' 등급은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며 이중 '하게체'는 손아래 사람을 대우하는 등급이다. '해요체', '하오체', '합쇼체'는 손윗사람에게 사용하며 '합쇼체'가 '하오체'보다는 청자를 더 대우하는 등급이다.

- (20) 어르신, 어디에 가십니까?
- (21) 형님, 드시오.
- (22) 철수야, 앉아 보아라.

청자가 문장에서 호격어로 발현되므로 상대경어법에서는 호격어와 서술어의 어미 표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의 '어르신'이라는 호격어는 '합쇼체'에서 사용되는 어말어미 '하십시오'와 어울리고, (21)의 '형님'은 '하오체' 표현인 '-오', 그리고 (22)와 같이 호격 조사가 붙는 표현은 손아래 사람에게 쓰는 표현인 '해라체'에 어울린다 [7].

3.6 상대경어법과 인칭대명사

상대경어법은 화자와 청자간의 존대 정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화자를 가리키는 일인칭대명사, 청자를 가리키는 이인칭대명사의 쓰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자는 청자에게 예를 갖추기 위하여 '저'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일인칭대명사를 쓰기도 하며, 청자를 높이기 위하여 '당신'과 같은 이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 (23) 아저씨, 제가 들어 드릴게요.
- (24) 자네 왔는가?

(23)의 일인칭 대명사 '제'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므로 문장 종결어미의 표현은 '해요체', '하오체', '합쇼체' 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4)의 이인칭대명사 '자네'와 같은 표현은 '하게체'와 어울린다.

3.7 객체경어법

객체경어법은 주체경어법이나 상대경어법이 서술어의 어미 변화 등 문법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여쭙다', '드리다', '모시다' 등의 특수한 서술어와 여격조사 '-게'에 의해서 (25)와 (26)과 같이 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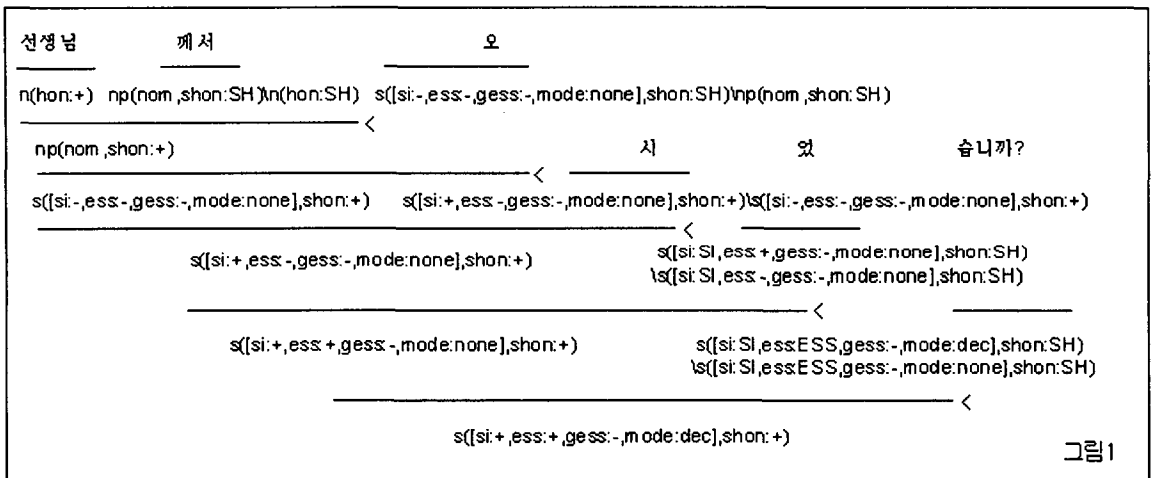
- (25)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어?
- (26) 할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4. 결합범주문법과 한국어 경어현상 처리

본 절에서는 지난 절에서 살펴본 문형들을 결합범주문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4.1 한국어의 결합범주문법

본 연구에서는 [13,14]에서 제시된 결합범주문법에 경어체계에 대한 어휘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용언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여 범주를 할당하는 대신,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을 별도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합범주문법에서는 '시-있-겠'의 선어말어미 결합순서 고려도 추가하였다. 그 외 '옵' 등의 선어말어미는 현대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³ 그러므로 문장의 범주는 s(['시' 결합여부, '있' 결합여부, '겠' 결합여부, mode], 주체경어법정보, 객체경어법, 상대경어법정보)와 같다. <그림1>은 구문분석의 예이다.



4.2 결합범주문법으로 경어현상 처리

본 절에서는 경어현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존대의 표현과 관련된 어휘에 적절한 범주를 할당하는 문제를 다룬다. '전하', '어르신', '나으리', '아버님'과 같은 명사는 스스로 존대의 자질을 갖는 명사이다. 이러한 명사는 주어, 목적어, 여격 부사어 등으로 쓰여 주체경어 및 객체경어 현상에 관련된다. 일인칭대명사 '저', '신첩', 그리고 이인칭대명사 '자네', 삼인칭대명사 '당신' 등도 존대의 자질을 갖거나 겸양의 표현으로 경어법에 참여한다. 그리고 조사 '-께서'와 '-께서'는 각각 주체경어법과 객체경어법에서 각각 존

대의 자질을 부여한다. 형용사와 동사는 선어말어미 '-시-'와 어말어미 및 특수 어휘를 통하여 경어현상을 보인다.

4.2.1 간단한 주체경어 문형 처리

존대 자질의 유무에 따라 명사는 아래와 같이 범주를 할당 받는다. 스스로 존대의 자질을 갖지 못하는 명사는 그 자질을 ?⁴ 값으로 갖는다.

(27) lex('선생님', n(hon:+)).

(28) lex('아버지', n(hon:?)).

주격조사 '-께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할당한다.

(29) lex('께서', np(nom, shon:+)\n(hon:+)).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된 '오시다'의 경우 각각의 형태소에 아래와 같은 범주를 부여한다.

(30) lex('오', s([si:-,ess:-,gess:-,mode:none], shon:S)\np(nom,shon:S)).⁵

(31) lex('시', s([si:+,ess:-,gess:-,mode:none], shon:+)\s([si:-,ess:-,gess:-,mode:none],shon:+)).

(32) lex('다', s([si:+,ess:E,gess:G,mode:dec], shon:+)\s([si:+,ess:E,gess:G,mode:none],shon:+)).

(33) lex('다', s([si:-,ess:E,gess:G,mode:dec], shon:-)\s([si:-,ess:E,gess:G,mode:none],shon:-)).

종결어미 '-다'의 범주를 위와 같이 shon과 si의 값을 통하여 주어가 높여질 때 '-시-'가 결합해야 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범주 할당으로 '아버지-께서 오-시-다'와 같은 문장은 최종적으로 s([si:+,ess:-

⁴ ?는 그 값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구문분석시 결합과정에서 결정된다.

⁵ 앞 절의 설명과는 달리 객체경어 및 상대경어에 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을 더해 감으로써 덧붙인다.

³ 사극 대본을 처리하기 위하여 '옵'이 쓰일 때는 어말어미에 붙여 처리하였다.

,gess:-,mode:dec], shon:+)와 같은 구문분석 결과를 보인다.

4.2.2 접속문의 처리

등위접속문에서 좌접속항의 ‘-시-’만 생략되거나 종속접속문에서 내포문의 ‘-시-’만 생략되는 현상은 결합범주문법의 내재적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이는 결합범주문법의 축약규칙인 <∅>⁶에 의하여 같은 범주끼리 묶여지기 때문이다.

- (34) 선생님께서 친절하시고 상냥하시다.
- (35)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상냥하시다.

(34)와 (35)는 축약규칙 <∅>에 의하여 각각 [[[선생님-께서] [친절하-시]-고 [상냥하-시]]]-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상냥하]]]-시-다]로 구문분석이 이루어진다.⁷

4.2.3 보조용언구문의 처리

본용언과 보조용언 중 어디에 ‘-시-’가 결합해야 하는가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3]의 이론을 수용한다. [3]에 따르면 보조적연결어미 ‘-어’가 쓰인 경우는 보조용언에만 ‘-시-’가 결합하고, ‘-고’, ‘-게’, ‘-지’ 등의 보조적연결어미가 쓰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모두에 ‘-시-’가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현상을 결합범주문법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 할당을 한다. 다음은 보조적연결어미 ‘-어’와 ‘-지’의 범주이다.

- (36) lex(‘어’, s([si:-, ess:-, gess:-, mode:none], SH) /s([si:-, ess:-, gess:-, mode:none], SH) \s([si:-, ess:-, gess:-, mode:none], SH)).
- (37) lex(‘지’, s([si:+, ess:-, gess:-, mode:none], SH) /s([si:?, ess:-, gess:-, mode:-], SH) \s([si:+, ess:-, gess:-, mode:-], SH)).
- (38) lex(‘자’, s([si:+, ess:-, gess:-, mode:none], SH) /s([si:+, ess:-, gess:-, mode:-], SH) \s([si:_, ess:-, gess:-, mode:-], SH)).
- (39) lex(‘자’, s([si:-, ess:-, gess:-, mode:-], SH, AH) /s([si:-, ess:-, gess:-, mode:-], SH) \s([si:-, ess:-, gess:-, mode:-], SH)).⁸

4.2.4 관형절의 처리

⁶ <∅>는 병렬(Coordination)규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 CONJ X → X

⁷ 병렬처리는 어휘범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규칙 <∅>를 사용하지 않고 어휘범주할당으로 해결하였다. 참고로 연결어미 ‘-고’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할당한다.

lex(‘고’, (s(A, B)/s(A, B)\s(A, B)).
lex(‘고’, ((s(A, B)\np(nom, C))/(s(A, B)\np(nom, C)) \s(A, B)\np(nom, C)).

⁸ 보조용언의 어간에는 다음의 ‘보’의 예와 같이 범주를 할당한다.

lex(‘보’,s([si:-, ess:-, gess:-, mode:none],shon:?)).

보문에 대한 관형사형어미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할당된다.

- (40) lex(‘ㄴ’, (n(hon:S)/n(hon:S)) \s(., shon:?)).

그러나 관계절에서 사용되는 관형사형어미는 피수식어가 주어인 경우와 다른 성분(목적어나 여격 부사어)인 경우는 각각 다른 범주가 할당된다. “대통령을 이오실 원자아기씨”과 같이 피수식어인 명사가 내포문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관형사형어미 ‘-르’에 다음과 같이 범주가 할당된다.

- (41) lex(‘르’, (n(hon:+)/n(hon:+)) \s([si:+, .], shon:?)\np(nom, shon:?)).
lex(‘르’, (n(hon:-)/n(hon:-)) \s([si:-, .], shon:?)\np(nom, shon:?)).

관형사형어미 ‘-르’이 결합하는 것은 주어가 결합하지 않은 어간으로서 만약 피수식어인 명사가 존재의 자질을 갖고 있다면 결합하는 어간이 ‘-시-’가 결합된 형태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 어른께서 내리시는 사약”과 같이 목적어가 피수식어인 경우는 전성어미 ‘-는’에 (42)와 같이 범주를 할당한다.

- (42) lex(‘는’, (n(hon:_H)/n(hon:_H)) \s([si:?, .], shon:?)\np(acc, shon:?)).

서술어 어간이 주어와 이미 결합을 한 후이므로 어간의 shon의 값이나 ‘-시-’ 결합 유무는 ‘-는’의 결합 전에 결정이 된다.⁹

4.2.5 이중주어문

이중주어문은 이중주어문을 만드는 서술어의 어간에 두 개의 주어를 취하는 특수한 범주를 할당하여 처리한다. 이중주어에 관한 서술어 어간 범주의 예는 (43)과 같다.

- (43) lex(‘불편하’, s([si:-, ess:-, gess:-, mode:none], shon:SH)\np(nom, shon:SH)\np(nom, shon:?)).¹⁰

(43)과 같은 범주 할당으로 용언 ‘불편하-’의 ‘-시-’ 결합여부는 직접주어가 아닌 간접주어에 의해 결정된다.

4.2.6 상대경어법과 호격어

⁹ 단 동사 어간이 주어와 먼저 결합해야 하므로 타동사의 어간에 어휘범주를 할당할 때는 목적어보다 주어와 먼저 결합하는 범주도 있어야 한다.

¹⁰ 어순에 의하여 먼저 결합하는 것은 직접주어이다.

상대경어법은 어말어미를 통한 여섯 등급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어휘범주에 상대경어법에 대한 자질이 첨가된다. 예를 들어, 종결어미 ‘-니니다’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44) lex('니니다', s([si:SI,ess:E,gess:G,mode:decl],
shon:S, ahon:합쇼)\
s([si:SI,ess:E,gess:G,mode:none], shon:-, ahon:합쇼)).
```

또한 호격조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만든 호격어는 청자를 존대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해라체’나 ‘해체’에서 사용된다. 이는 다음과 호격조사 ‘-아’의 범주할당 예이다.

```
(45) lex('아', np(voc,ahon:해라)¶n(hon:-,ahon:해라)).
```

호격어와 문장은 쉼표를 통하여 연결되므로 쉼표의 적절한 범주 할당도 필요하다.¹¹

4.2.7 상대경어법과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와 상대경어법의 일치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명사 및 명사¹², NP등 모두에 상대경어법에 관한 자질이 첨가되어야 한다. 명사는 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므로 상대경어법에 관한 자질을 물려 받는다.¹³

(46) 자네의 뒤를 보게.

```
(47) lex('자네', pron(hon:?,ahon:하계)).
```

(46)의 처리를 위해서 대명사 ‘자네’는 (47)과 같이 범주를 할당한다. ‘자네’의 ‘하계’라는 상대경어법에 관한 정보를 관형격 조사 ‘-의’를 통해 명사 ‘뒤’에 전달되고, 마찬가지로 동사어간이 ‘보-’에도 전달되어, 결국 종결어미 ‘-게’와 결합시에 상대경어에 관한 자질이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4.2.8 객체경어법

객체경어법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인 ‘드리-’는 여격 부사어에 의하여 객체경어가 되므로 np(dat)의 ohon의 자질의 값이 +를 갖도록 어휘범주를 할당한다. 여격조사 ‘-께’는 명사와 결합하여 여격 부사어에 객체

경어의 자질을 부여하도록 어휘 범주를 할당한다. 각각의 어휘범주 할당은 다음과 같다.

```
(49) lex('드리', s(..., SHON, ohon:OH, AHON)
\np(nom, SHON, AHON) \np(acc, SSHON, ohon:?, AHON)
\np(dat, SHON, ohon:+, AHON)).
(50) lex('께', np(dat, shon:?, ohon:+, AHON)
\n(hon:+, ahon:AHON)).
```

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실험대상은 경어법이 많이 쓰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라마 사극 대본으로 하였다. 사극은 신분의 차이가 뚜렷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므로 경어현상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경어법이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리고 사극 대본은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을 당시 시대상에 투영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현대 국어 자료로의 확장을 더욱 쉽게 한다. 그러나 특정 대본 작가들의 글이므로 경어법 쓰임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드라마 대본은 대화체이므로 대부분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술어의 어간에 주어나 목적어 등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범주를 할당했다. 본 연구에서는 3편의 사극에서, 각각 한 회의 대본을 골라 무작위로 100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실험을 했다.

5.2 결과 및 분석

구문분석이 실패한 경우는 문장이 경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와 경어법에 부합하지만 제안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드라마 대본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출한 백 개의 문장에서 경어법이 틀린 문장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경어법이 틀렸다고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1) 우리 좌의정대감께서 대국 조정에 계신 분들과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데 장대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하오.
(52) 정대감께서 원자아기씨의 곁을 보위해 준다면 한결 든든할 것인데..
(53) 원자아기씨가 편찮으시다고 하질 않느냐.
(54) 그 어린만큼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

(51)은 ‘좌의정대감께서’로 주어가 존대된 것에 비하여 ‘맺었으면’의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시-’가 쓰이지 않았다. (52)의 문장도 (51)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정대감께서’로 존대의 형태임에 비하여 서술어 ‘보위해 주-’에는 ‘-시-’가 결합하지 않았다. (53)은 반대로 주어가 ‘원자아기씨가’로 존대된 형태가 아님에 반하여 서술어에는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

¹¹ 쉼표에는 다음과 같이 범주를 할당한다.

```
lex(' ', (s(A, B, ahon:합쇼)
/s(A, B, ahon:합쇼) \ n(hon:+, ahon:합쇼)).
lex(' ', (s(A, B, ahon:해라)
/s(A, B, ahon:해라) \ np(voc, ahon:해라)).
```

¹² 상대경어법에 관한 정보는 대명사의 수식 등을 통하여 모든 품사에 전파될 수 있으므로 모든 품사의 범주에는 상대경어법에 관한 정보가 보관되도록 어휘범주를 정한다. 다음은 명사의 예이다.

```
lex('전하', n(hon:+, ahon:?)).
```

¹³ 관형격조사 ‘-의’에는 수식명사의 존대자질이 피수식명사에 전달되도록 범주가 할당된다.

되었다. (54)의 문장은 주어는 ‘분이’로 존대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서술어는 ‘있겠느냐’로 존대되지 않았다.

다음은 ‘-시-’가 단순히 주어를 높여주는 용법이 아닌 경우로 이번 연구에서 처리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잘못 제시하는 경우이다.

- (55) 부인, 지금 중전마마를 알현하고 오시는 길이신가?
- (56) 대원위 대감 행차시옵니다
- (57) 꼭 그리 되셔야지요.

(55), (56), (57)의 주어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주어에 높임을 받는 인물이 아니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경어현상을 통사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문형별로 정리를 하고 결합범주문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향후 계획과 본 연구의 유용성에 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경어법을 고려한 구문분석은 의미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 그 주어를 구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58) 나오리께옵서 당분간 두문불출하신다길래 잠시 짬을 냈사옵니다

(58)에서 경어법을 고려하지 않고 구문분석을 할 경우, ‘두문불출하-’의 주어와 ‘짬을 내-’의 주어가 ‘나오리께옵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어법을 고려하게 되면 ‘짬을 내-’의 주어는 ‘나오리께옵서’가 아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대화체의 문장들은 주어나 목적어 등이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화체 문장들에서는 생략된 대상이 주로 청자나 화자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것을 고려하여 의미구조를 어휘사전에 더함으로 이런 생략현상을 처리할 것이다.

경어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략현상을 처리할 때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계번역에서도 유용하다.

- (59) Welcome to America, Mr. Kim.

(59)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Welcome to America”는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등으로 번역될 수 있고, “Mr. Kim”은 “김군”, “김씨”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 경어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조합이 가능하나 경어법을 고려함으로써 가능한 조합이 줄어든다.

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경어법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경어

법이 지켜지지 않은 문장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문법검사기의 문제와 유사하다. 문법검사기와 마찬가지로 틀리기 쉬운 표현을 어휘사전에 첨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60) 할아버지가 오셨다.

(60)와 같은 문장에서 존대의 대상이 되는 ‘할아버지’는 보통 ‘-가’와 결합하기 어려운데 존대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가’의 범주를 어휘사전에 더함으로써 구문분석을 성공시킬 수 있다. 만약 경어법검사기에 치중한다면 문법검사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합을 허용한 후에, 결과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7. 참고 문헌

- [1]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2] 남기심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3] 임동훈, 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4] 서덕현, 1992.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1) \ 주체 경어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
- [5] Park, Byung-Soo. 1991. The semantic and pragmatic nature of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THE SIXTH JAPANESE-KOREAN JOIN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 [6]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7] Sung Kyu Yun, 1997. Addressee Honorific Agreement. *담화와 인지*, 제4권 2호.
- [8] Lee, Dong-Young. 1996. An HPSG account of the Korean honorification system. In Claire Grover and Enrich Valduvi, editor(s), *Edinburgh working papers in cognitive science. Studies in HPSG*.
- [9] Siegel, Melanie. 2000. Japanese honorification in an HPSG framework. In *Proceedings of the 14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 [10] Park, Byung-Soo. 1998. The semantic and pragmatic nature of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A constraint-based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 [11] Ikeya, Akira. 1983. Japanese honorific system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framework. In *Seoul Papers in Formal Grammar Theory Proceedings of the Third Korean-Japanese Joint Workshop*.
- [12] 최재용. 1995. 한국어 일치 현상의 문제점: -시-를 중심으로.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 [13] Park, Jong C. & Cho, Hyung Joon. *Informed Parsing for Coordination with Combinatory*

Categorial Gramma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COLING), Saarbrucken, Germany, 2000.

[14] Lee, Jin-bok & Park, Jong C. Multiset-CCG for Quantifier Floating in Korean, Proceedings of the KISS Conference, 1999.

[15] 서정수. 1977. 주체 대우법의 문제점. 배달말 2, 배달말연구회